

로베르토 카푸치(Roberto Capucci)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각적 조형성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Formative Feature Shown in the Work of Roberto Capucci.

이서희

건양대학교 공연의상학과 부교수

Seo Hee Lee

Associate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dept of Costume Design

1. 서론

2. 카푸치의 시대별 디자인 분석

- 2-1. 1950년대
- 2-2. 1960년대
- 2-3. 1970년대
- 2-4. 1980년대
- 2-5. 1990년대 이후
- 2-6. 시대별 패션과 카푸치 작품 비교

3. 카푸치의 작품에 나타난 바이오모픽 이미지

- 3-1. 바이오모픽 아트(Biomorphic Art)
- 3-2. 장 아르프(Jean Arp) 조각에서 나타나는 특성
- 3-3. 카푸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바이오 모픽 이미지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로베르토 카푸치는 살아있는 조형으로서 옷을 디자인한 최초의 디자이너로 이탈리아 알타모다의 원조였다.

본 연구는 예술가인 카푸치의 디자인을 시대별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조각가 장, 아르프의 조각들을 통해 카푸치 작품의 조각적 조형성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장 아르프의 조각에서 표현된 바이오 모픽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실험적 소재 사용으로, 특히 플리츠 사용으로 건축적이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의상을 하나의 예술적인 조형물로 인식하여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의상이란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조형 예술로서 감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그의 창작 이념으로 구조적 의상(structural dress)으로 표현되었다.

의상을 조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로베르토 카

푸치의 의 디자인은 르네상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균형 감각속의 바로크의 감성적이고 극적인 요소를 기하학적 형태로 재해석하고 독창적인 기법으로 조형미를 표출함으로써 자신만의 패션세계를 표현하였다.

주제어

(로베르토 카푸치, 장 아르프, 바이오 모픽, 구조적 의상, 조형미)

Abstract

As the first designer, who designed dress with alive modeling, Roberto Capucci was the founder of Italian Altamod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his work world by analyzing his sculptures by year. Its another purpose is to understand formative feature of Capucci's work through the works of modern sculptor, Jean Arp.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explained as Biomorphic image expressed in the sculptures of Jean Arp.

Second, the use of experimental material, especially, pleats expresses architectural and geometrical design.

Third, he displays various creative designs by recognizing dress as an artistic sculpture. Under the his creation ideology, 'It is important to wear dress but it is more important to appreciate it as a formative art', he expressed structural dress. The design of Roberto Capucci that embodies dress as sculpture image expresses his unique fashion world by reinterpreting emotional, extreme factors of Baroque age as geometrical forms within ideal beauty, balance and sense of Renaissance age and expressing formative beauty through unique technique.

keyword

(Roberto Capucci, Jean Arp, Biomorphic, structural dress, formative beauty)

1. 서론

실험이란 측면은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이다. 실험에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의 씨앗이 담겨 있다면 그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으며 실험적인 도전은 창조의 일부로써, 일순간의 대중적인 유행이 아닌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생명을 만들어낸다. 1951년 이탈리아 패션계에 등장한 이래 로베르토 카푸치는 50여 년 동안 말 그대로 예술가로써 활동 했다. 그는 실험을 하고 규칙을 부수고 고정된 평범함과 진부함을 거부했다.

로베르토 카푸치는 살아있는 조형으로서 옷을 디자인한 최초의 디자이너로 이탈리아 알타모다의 원조였다.¹⁾

본 연구는 예술가인 카푸치의 디자인을 시대별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조각가 장 아르프 의 조각들을 통해 카푸치 작품의 조각적 조형성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시대별 디자인 분석

2-1. 1950년대.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 이탈리아의 꾸뛰르에들은 세련된 컬렉션을 발표해 세계적인 위상을 확고히 했다. 여성복은 밝은 '지중해 색상'과 강렬한 형태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로마에서는 로베르토 카푸치가 강렬하고 극적인 의상을 조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해 재능을 발휘했다.

1951년에 이탈리아 패션계의 대부인 조반니 바티스타 조르지니 의 사업에 의해 데뷔하게 되는데, 조르지니는 그 무렵 미국의 언론과 바이어들에게 정식으로 보여줄 패션쇼를 기획 로베르토 카푸치를 선두로 5명의 디자이너 작품을 선 보였다. 카푸치는 2년 후인 1953년 피렌체의 패션쇼에 공식적으로 데뷔하였다.

카푸치의 초기 이브닝드레스 들은 부드러운 형태의 빅 실루엣을 선호하여 커다란 망토를 다양한 창작 방식으로 변형하는 형태의 왜곡을 즐겼다.[그림1]

로베르토 카푸치는 21세 패션계에 등장해 건축적이고 기하학적인 개념을 의상에 도입해 뛰어난 컬렉션을 계속 선보였다.



[그림1] The first Collection 1951, Florence

특히 그의 의상들의 특징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전혀 새로운 '재료와 색채의 실험적 연구'를 보여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실루엣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의상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모방적이지 않고 조형적이다.

1956년부터 그의 조각적인 고유한 조형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데 [그림2]는 바로크 에스프리를 채용한 '10개의 스커트 드레스'라는 제목의 드레스로 인체를 건축의 골조처럼 여기고 그 밖의 공간을 건축학적 구성으로 완성시킨 작품이다.²⁾



[그림 2] Dieci gonne dress, 1956 Florence

의상의 전통개념을 극단적으로 변형시킨 기하학적이고 조각적인 형태의 이 스커트는 10개의 스커트가 층을 이루며 겹쳐진 것으로 타원형으로 된 비대칭적인 햄 라인이 창출하는 연속적인 리듬감이 감성적이며 극적인 요소가 결합된 바로크 미술의 연극적이고 풍요로운 성향을 표출한다.

1958-1959년 시즌 컬렉션에서 카푸치는 주로 박스 형태로 디자인 했다. [그림3]은 1958년 애셔사의

1) 공미선(1981).파리와 로마의 오프꾸뛰르 디자인의 특성. 복식, 제39호.p.42.

2) 김의경.(2005).20세기후반 이탈리아 패션디자인 연구-여성복을 중심으로-.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p.162.

모헤어를 사용했으며, 사각형의 케이프, 커다란 사각형 단추와 리본이 달린 입방체 모양의 모자에도 사각형을 시도했다.³⁾



[그림 3] 사각형 코트, 1958

카푸치는 그의 작업을 ‘형태에 대한 연구(Study of form)’라 불렀다.

각 튜닉과 드레스는 뾰뾰하고 여유 있는 사각형 실루엣으로 두 개의 옆 솔기를 가진다. 그의 드레스는 벨트를 풀면 마치 무게 없는 풍선 같이 날아갈 것 같으며, 힙 아래나 어깨에 나비날개, 부채, 꽃잎, 그리고 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형태로 걸쳐짐으로써 인체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⁴⁾ 그 기능성에 매료되어 모자와 커다란 단추에도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해서 보여 주었다. 이 디자인을 좋아했던 기자들이 박스 또는 "종이가방 paper bag"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그리고자 하는 본질적인 원형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한 입체과 이후 현대 미술의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상의 단순한 묘사보다는 구축적인 형태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던 입체과적인 제작 태도를 느낄 수 있다.

2-2. 1960년대.

1962년 미국의 패션 컬럼니스트인 유제니아 셰파르트(Eugenia Sheppard)의 권유로 파리의 상봉(Chambon) 거리에 아틀리에를 열고 그의 최초의 쇼는 컴뱃(Combat)지의 제1면에 ‘파리가 카푸치를 받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에게 큰 파문을 던졌다. 이후 유행적인 디자인 [그림4]과 비닐과 같은 실험적인 소재들로 기하학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을 시도했으나 [그림5,6] 별다른 지속적인 평가를 얻지 못한 채 1968년 다시 로마로 돌아온다. 예술적 근원을 그리워하던 그는 로

3)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1999)김정은은김(2006).20세기 패션. 시공사.p188.

4) 세계의 패션디자이너.(2000).(주)라사라.p108.

마에 비아 그레고리아나(Via Gregoriana)를 세웠다.



[그림 4] Optical contrasts, 1960-1961



[그림 5] 재료실험, 1966, Paris



[그림 6] 기하학 작업, 1966, Paris

2-3. 1970년대

1970년대는 카푸치가 당시에는 전위적이었던 라피아, 밀짚, 돌, 조약돌을 고급 옷감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재료의 사용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던 시기였다.⁵⁾

1970년대 카푸치는 미래주의, 합리주의, 팝아트 등 1900년대의 다양한 미술경향에 심취해 있었으며 특히 그가 좋아 했던 예술가 뒤상(Duchamp)에 대한 영향이 컬렉션에 강하게 표출되었다. 따라서 옷 위에 장식 모티브로써 일반적인 소재와 차별되는 돌과 라피아, 밀짚, 대나무 등을 사용했으며 [그림7,8] 이는 상업성과는 거리가 있는 예술성이 가미된 의상들로 판매보다는 저널리스트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림 7] 라피아와 대나무, 1972

5) Gianluca Bauzano(2001).Roberto Capucci Timeless Creativity. Milano:Skira. p 63.



[그림 8] Stones,1972

1970년은 카푸치가 Pier Paolo Pasolini의 의뢰로 그의 유일한 영화작업인 *Teorema* 작업을 했던 해이다. 카푸치는 주인공인 Silvana Mangano를 알기 전에 영화의 아이디어에 매혹되어 작업을 수락하였다. 여배우와의 첫 미팅에서 그는 그녀를“절대적인 조화의 형상”으로 보았다.[그림 9]



[그림 9] 영화 *Teorema*에서 Silvana Mangano

2-4. 1980년대

카푸치에게 언제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실험에 대한 열망은 작업의 독립성과 완전한 자유에 대한 필요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1980년대 알타 모다 쇼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작품들을 여러 도시와 박물관에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예술적인 패션 창작품을 위한 전시회를 유명한 원단업체들의 지원을 받으며 조각같이 독특한 예술 의상들을 발표함으로써 화려하게 재등장하기 시작했고, 패션디자인의 위상을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⁶⁾ [그림10,11]

‘직물의 미켈란젤로’로 불리는 카푸치는 자신을 조각가가 점토를 사용하듯이 천의 특징을 살려

생명력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내는 장인이라고 비유하며 양재사나 스틸리스타보다 연구자로 불리는 걸 더 좋아했다. 카푸치의 작품에는 ‘변형(Transformation)’의 테마가 언제나 존재하며 외형과 실제 사이에서 계속 변화하는 바로크 문화에 심취해 있었다. 이런 바로크 문화의 전위예술에 대한 주의 깊은 재해석이 그의 작품에 면면히 나타나 있다.



[그림10] 1980-1981,Rome



[그림11] 1985, New York

2-5. 1990년대 이후

90년대 카푸치는 주요 예술 행사와 국제 전시회에 많이 참여하였다 [그림12]

그의 최근 디자인은 발전된 실험의 결과로 특히 베니스에서 열린 “Roberto Capucci. 영원한 상상력” 전시회에서 발휘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세계 최초의 중공 섬유인 Nystar가 제작한 Meryl Nexten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갖춘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카푸치는 건축-기하학적 구성에 기초한 아름다움에 대한 또 다른 찬가를 만들어 냈다. 색상

6) 김의경, op.cit. p.160

은 직물에서부터 영원을 향해 폭발하는 것처럼 보인다.7)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100주년을 위해 만든 12개의 작품에서 실크 주름은 청동을 혼합하고 숙성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끝없는 색의 그림자를 만들어 낸다. 카푸치의 디자인과 창조성은 단순히 입기위한 드레스가 아닌 예술가의 해석이 깃든 드레스 자체로 평가받아야한다. 또한 그의 작품은 옷감의 재단을 위해 조각가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건축가가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발명과 건축 지식을 필요로 한다.[그림13]



[그림12] 1990, Palazzo Strozzi Florence



[그림13] 1995, Venice Biennale, X L VI

바로크와 변형을 결합한 독창적인 조형미로 사양기에 접어들었던 ‘알타모다’를 새롭게 부각시키며 고유의 장르를 개척한 로베르토 카푸치는 이자미란 다와 글로리아 스완슨, 마릴린 몬로, 재클린 케네디, 리타 몬탈치니와 같은 유명인을 고객으로 두었으며, 보석, 라이타, 가정용 직물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라이선스 계약 및 전 세계적인 초청 전시회 등으로 경제적인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고객에게 상업성을 떠나 순수하고 독창적인 알타모다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그림14]

7) Gianluca Bauzano, op.cit. p.83.

2003년 가을부터 스페인의 디자이너 시빌라 (Sybilla) 와 벨기에 디자이너 버나드 윌헬름 (Bernhard Willhelm)을 영입해 파리에서 오프 꾸뛰르와 프레타 포르테를 발표하면서 카푸치 하우스의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15][그림16]에서 보여지 듯 현대적인 작품에서도 주름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볼륨성과 조형적이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기성복 쇼에서 보여진다.



[그림14] 2001, Roberto Capucci




[그림15] 2003, Ready-to wear, MILAN, March



[그림16] 2004, Ready-to wear, MILAN, October.

2-6. 시대별 패션과 카푸치 작품 비교

[표1] 시대별 유행 패션과 카푸치 작품 비교표

	시대별 유행 패션		카푸치 작품 특성	
1950년대		<p>1950년 슈트는 허리가 꼭 맞는 자켓과 폭이 좁은 스커트. 크리스찬디올 작품. 1954년 Hardy Amies의 드레스는 여러 겹의 페티코트 착용하여 풍성한 스커트 형을 만들었다.</p>		<p>1956년 카푸치의 10개의 스커트 드레스라는 제목의 드레스로 인체를 건축의 골조처럼 여기고 그 밖의 공간을 건축학적 구성으로 완성시킨 작품이다. 다리로 지탱되는 형식에서 무게 중심의 내적의미가 표현되었다.</p>
1960년대		<p>1966년 퀴트의 미니스커트. 단순한 형태의 미니스커트, 짧은 머리, 현란한 귀 거리가 함께 착용되었다</p>		<p>1965-1966년 카푸치 작품으로 옵아트 패턴을 의상에 사용.</p>
1970년대		<p>남녀 공용 착용하는 유니섹스 스타일. 진이 일상복 이 됨. 민속풍의상과레이어드룩</p>		<p>1971년 작품으로 밧줄을 재료로 사용. 앞의 [그림7][그림8]에서 보여 주듯이 대나무, 돌 등 다양한 의상 재료 실험.</p>
1980년대		<p>넓은 어깨와 긴 스커트가 특징. 다이에나비의 의상이 관심의 대상</p>		<p>1984년 파리 컬렉션 사진으로 무릎위선에 묶음으로 아래위로 퍼지는 형태의 볼륨감으로 조형적 표현</p>
1990년 이후		<p>스포티한 일상복 등장. 천연섬유로 만든 에콜로지룩. 에스닉룩. 그런지룩. 레트로룩, 란제리룩 등 다양한 패션등장</p>		<p>1994년 작품으로 다양한 유행 패션과 상관없이 조각적, 기하학적 구성에 기초한 구조적 디자인 작품세계를 만들.</p>

[표1]에서 비교해본 결과 시대의 유행 패션과는 상관없이 카푸치는 의상을 조형물로 인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카푸치의 작품에 나타난 바이오모픽 이미지

3-1. 바이오모픽 아트 (Biomorphic Art)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 속에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후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표현되었다. 처음에는 외형으로부터의 유기적인 형태를 모방하거나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서 상징적으로 생명 현상을 표현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발견으로 인해 작가들은 근원적인 생물형태들을 상징적 의미와 함께 유기적 형태로 표현했다.

예술분야에서의 자연형태는 이미지 표현에 있어 자연의 고정된 형태이면서 존재하는 생명체의 끊임 없는 변화와 통합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 형태를 통해 전반적인 자연의 현상으로 표현된다.

현대미술 또는 예술 활동과 인간 활동의 총체적인 주체로서의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미술을 '바이오모픽 아트'라 한다.⁸⁾ 이는 생명형태가 주는 애매모호한 상징적인 느낌이나 혹은 유기적 형태 자체가 주는 생명에 대한 암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써, 완벽한 형태보다는 자유분방한 형상을 통해 원초적 생성공간의 이미지를 재조명하여 유기적형태가 주는 생명 성, 이미지의 미적 완결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루시 스미스(Edward Lucie-Smith)의 정의에 의하면 '바이오모픽'이란 자연 속에서 보여 지는 형태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규칙한 추상 형태들을 포함하여, 주로 꽃이나 식물, 남성과 여성의 성기 및 생명체 혹은 생명현상과 연관된 모티브를 사용하는 유기체적인 (Organic)양식이라 한다.

3-2. 장 아르프(Jean Arp) 조각에서 나타나는 특성

아르프(1887-1966)는 자연의 생명현상 원리에 근거하여 생물형태(Biomorphic)이미지를 유기적으로 조형화시킨 대표적 작가이다. 구멍은 한스 아르프로 독일에서 출생하여 프랑스에서 활약한 조각가이다.

아르프 작품의 형태는 생물체 적이며, 유기적으

로 형상화된다. 유기적 형상성은 등그스름한 윤곽선을 보여주고, 대체로 비정형적이거나 비대칭적이며 인간의 몸 또한 비정형적인 타원형과 곡선을 이루는 자유로운 형태이다. 아르프의 조각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식물의 싹 혹은 뿌리를 연상시키는 듯한 부정형의 단순한 형태이다. 그 형태를 통해서 물체가 갖는 특수성과 우연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방법을 보는 듯하다. 예술작품은 "자연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그런 것 럼 무명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의 말에서 보여지 듯 자연일 것, 무명일 것, 이것이 아르프 작품의 근본사상이다.

'귀찮은 오브제들이 있는 머리' [그림 18]은 부드러운 내장 형태들이 실제 시간의 우연성에 따라 형태가 배치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개의 '귀찮은 오브제들'이 관람자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이 조각은 예술가가 아닌 다른 이의 일시적 생각에 반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⁹⁾



[그림 18] 귀찮은 오브제들이 있는 머리,1931년.

아르프는 자신의 조각을 '응집(concretion)' 이라고도 불렀는데 "응집이란 서로 결집, 경화, 응고하며 비대해지고 성장해 가는 자연의 과정"을 정의하는 용어이다. 응집은 성장하는 그 무엇이다.¹⁰⁾ 내부에서 발생하여 솟아나는 듯이 보이는 형태를 만드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유연한 곡선과 내부에 빈공간이 있는 볼륨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대리석 및 청동 조각들은 순수함과 간결함의 결정체라 하겠다.¹¹⁾ 아르프의 작품은 대강의 윤곽선을 지닌 형태와 이미지 연결로 단순하게 보여 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9) Rosalind E.Krauss(1997).윤난지옮김(1980).현대조각의흐름. 도서출판 예경.p167.

10) Sir Herbert Read(1964)김성희옮김(2000).간추린 서양 현대 조각의 역사. 시공사.p78.

11) 김정화편저(1993).20세기 미술의 모험.(주)에이퍼인터내셔널.p171.

8) 최지은.(2007).세포의 유기적 생명력에 관한 조형표현연구.국립대학원석사학위논문.p10.

생명의 은유가 성장하여 하나로 형성되거나 대조를 이루면서 부숩졌다가 또다시 새로운 전체로 끊임없는 형태의 변형을 이루고 있다.[그림19]



[그림19] 응집된 인물,1933

아르프의 1930년대 작업은 성장과 변형이라는 이중의 은유에 기반을 두고 발전되어 나갔다. 부드러운 표피 속에서 부풀어 오르거나 꼬인 부분들은 대리석이나 청동같은 비유기체가 내부로부터 생명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림20] 입체용기의 내부로부터 유동적인 압력의 감각을 발산시킴으로써 아르프는 표면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림20] 성장,1938.

아르프의 조형세계는 생명적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3-3. 카푸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바이오 모픽 이미지

아르프의 작품은 자연의 순리와 법칙에 따르려는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자연에 대한 의식적인 표현의 재현이나 모방이 아닌 내면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우연성을 도입하였고, 형태의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자연의 신비로운 원칙에 의해 구체물로 형성되어지는 단순성을 추구하였다. 생명체의 운동을 보듯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명감을 얻기 위하여 유기적인 형상성을 작품에 적용하여 그

만의 독특한 형태의 조형언어를 구축하게 되었다.¹²⁾ 그들 형태는 유기체의 성장과 소멸과정에 내재하는 리듬을 지니고 불규칙적인 형태를 가지면서도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룬다. 명확하고 매끄러운 형태와 불명확한 요소들이 가장 단순한 파편으로 구성되면서 동시에 독립된 완전한 형태가 되기도 한다.

카푸치는 자연에서 패션의 영감을 찾았으며, [그림21]은 생명체의 호기심으로 자연 속에 살아있는 나비 모티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조형 작품에 생명현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림22][그림23]은 조형 요소인 원을 반복적으로 사용 마치 생명활동의 우연적 발생과 증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원운동은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통한 생명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형태의 이 같은 전개가 볼륨(volume)을 지니고 공간으로 퍼져 나갈 때에 조각적 특징을 갖는다.

앞의 설명에서 나타나듯이 카푸치의 작품은 아르프의 작품의 특성인 바이오 모픽 이미지를 통해 이해되어진다.



[그림21] Butterflies,1985,New York



[그림22] 1990, Palazzo Strozzi

12) 박소현.(2006).아르프(Hans/Jean Arp)의작품에 나타난 유기적 형상성에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21.



[그림23] 1992,Berlin

4. 결 론

생명체의 이미지는 예술가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모티브였다. 또한 유기적이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 형태의 특징은 생명활동으로부터 오는 유기적 리듬감을 가진다.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상의 사실적인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그 대상에 내포된 의미를 찾아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로베르토 카푸치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 아르프의 조각에서 표현된 바이오 모픽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다.

로베르토 카푸치는 여성신체를 곡선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여 자연에서 발견한 유기적인 형태에서의 볼륨감과 구조적인 단순성으로 표현 하였다.

둘째, 실험적 소재 사용으로, 특히 플리츠 사용으로 건축적이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주름은 선에 의해 음양과 볼륨성이 결정되며 주름의 효과는 조형적 요소, 조형이 지닌 기하학적 특이현상,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주름형태의 가변성 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카푸치는 주름진 재질을 이용함으로써 의상에 조형물로서의 구성력을 지닐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의상을 하나의 예술적인 조형물로 인식하여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의상이란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조형 예술로서 감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그의 창작 이념으로 구조적 의상(structural dress)으로 표현되었다.

의상을 조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로베르토 카푸치의 의 디자인은 르네상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균형 감각속의 바로크의 감성적이고 극적인 요소를 기하학적 형태로 재해석하고 독창적인 기법으로 조형미를 표출함으로써 자신만의 패션세계를 표현 하였다.

참고 문헌

- 고경남,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디자인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영란, 현대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의 변형,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의경, 20세기 후반 이탈리아 패션디자인 연구-여성복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나카하라 유스케, 兪聖雄역, MODERN SCULPTURE, 한국미술년도사, 1989
- 미술대사전Ⅱ, 한국사전연구소, 1998
- 박소현, 아르프(Hans/Jean Arp)의 작품에 나타난 유기적 형상성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확사, 2006
- 세계의 패션디자이너, (주)라사라, 2000
- 20세기 미술의모험, (주)에이피인터내셔널, 1993
- 제라드 듀로조이편저, 곽동준옮김, 세계현대미술사전, 도서출판 ZIPPYUN, 2008
- 추연실, 바이오모픽(Biomorphic)이미지를 응용한 직조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지은, 세포의 유기적 생명력에 관한 조형표현 연구, 국민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 DAVID BOND, 정현숙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2000
- Gianluca Bauzano, Roberto Capucci Timeless Creativity, Milano:Skira, 2001
- Rosalind E.Krauss, 윤난지옮김, 현대조각의 흐름, 도서출판 예경, 1980
- Sir Herbert Read, 김성희옮김, 간추린 서양 현대 조각의 역사, 시공사, 2000
-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김정은옮김, 20세기 패션, 시공사, 2006
- <http://www.style.com/fashion/shows/review/F2003RTW-CAPUCCI>
- <http://www.style.com/fashion/shows/review/F2004RTW-CAPUCCI>